망상 · 애고 · 병고에 끄달려선 안돼

☞ 27면에서 계속

있는 거죠?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 몸뚱이 속의 중생들을 먼저 제도시켜야, 아시겠습니까? 내 중생들을 먼저 제도시켜야 화(化)해서 바꿔져서 털구멍을 통해서 들고나면서 응신(應身)이 돼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몸 속에 있는 내 중생들이 다 제도가 돼야 마지막으로 자기를 성불로 완성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완성하려면 내 중생부터 다 제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간편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왜 둘로 보고 망상이다 뭐다 하고, 또는 어떤 애고가 오면 온통 빌고 야단법석을 딴 데다가 하니까, 그게 무슨 격이냐 하면 땅에 가다가 엎드러져 놓고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땅에서 엎드러졌으면 땅을 짚고 일어나야 일어나지지 어떻게 허공을 허우적거려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불보살에게 빌어도, 아무리 과거의 부처님이 이 자리에 계신다 하더라도 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나를 깨닫는 거는 절대적으로, 자기가 먹을 건 자기가 먹어야 되는 법입니다. 항상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만이 똥 눌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플 수 있고 죽을 수 있다. 다섯 가지 어떤 것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니, 내 마음 찾기인데, 찾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기인데 누가 대신 밥을 먹어 줍니까?

▲질문2: 알겠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머무름이 없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마음'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도 말씀하신 육조 혜능 선사께서는 이 한 구절을 듣고 홀연히 지견이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만약 마음에 머무름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닦고 배울 것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닦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미 머무르는 마음이 아닌지요?

▲스님: 그러면 머무른다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 노릇을 합니까? 또 남편 노릇을 해야지 생각하고 남편 노릇을 합니까? 그렇게 미리미리 생각하고 합니까, 모든 일체 만법을요? 그리고 병고가 오더라도 '병고가 간다' 이러고선 옵니까? '내가 병을 앓겠다' 하고 앓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주인공이 청정함을 어찌 알았으리까?' 청정하다는 뜻은 더럽고 깨끗한 것을 한데 합쳐서 돌아가고 나라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 한 구절을 듣고서 지견이 열렸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지견이 열립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지, 아니, 머무르는 바가 있게 생활합니까?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내가 집을 짓겠다.' 한다면 그것도 머무름이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짓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집이 올라갔단 말입니다. 머무르는 바가 없이 머물렀다는 얘기죠. 일상 생활을 전체 머무르는 바 없이 하고들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갖추어 가지고 있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인공의, 그 중심에 의해서 들이고 내는 데 자유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가 찌들고 뭐가

> 생명이 있기 때문에
> 마음이 있는 것이고
> 마음이 있기 때문에
> 물질이 있는 것

어떻게 되고, 할 양으로 애를 쓰고, 할 양으로 애를 쓸 필요가 없이 하고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전부들 성불하십시오. 하하하.

▲질문3: 불도를 닦는 데 있어 육바라밀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의 소견이겠습니다마는 가만히 따져 보면 보시(布施) · 지계(持戒) · 인욕(忍辱) 등이 모두 무엇인가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그렇게 상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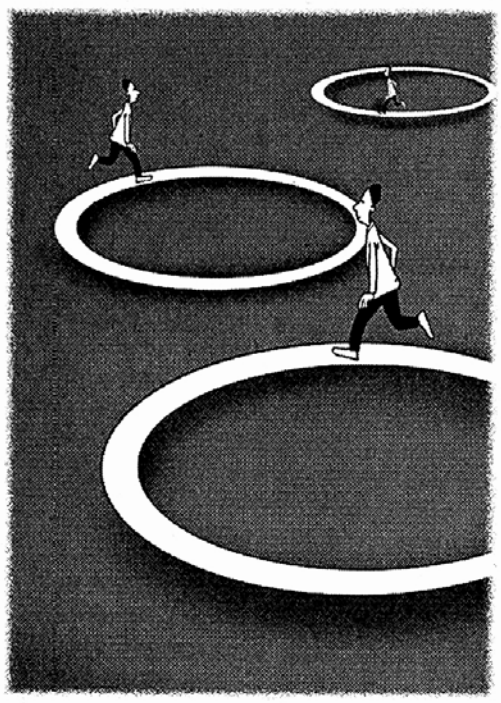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공부 재료로

도구로 어떻게 세간의 도리를 넘어 상에 걸림이 없는 불도에 들 수 있는 것 인지요?

▲스님: 마음에서 모든 게 빚어지는 일들입니다. 내가 지혜가 풍부해서 모가 나지 않고 둥글게 모든 것을 무주상으로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을 때에 보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조건이 있다면 보시가 아니죠.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이름이나 나려고 하고 권세나 가지려고 하고, 또 자기가 해 나가는 일들이 좀더 순탄하게 나가기를 바라는 욕심에서 하는 거는 보시가 아닙니다. 유(有) · 무(無)를 타파하고 조건 없는 자비로써 보시를 할 때에 그게 무주상 보시입니다.

그런데 무주상을 행하는 거는 어떤 놈입니까. 보시, 지계, 인욕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주인공에서 지혜도 나오고, 무주상도 나오고 행동도 나오고, 또 인욕도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인욕을 행하고 보시를 한다 하더라도 함이 없이, 머무르는 바가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끔 마음의 다스림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4: 마음공부와 어쩌면 조금 각도가 틀리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무척 어렵습니다.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의 욕구 분출이 늘어나고,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고, 도덕성이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침체돼 있는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2월 말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목표로서 '신한국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각 분야마다 새로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외람된 질문입니다만 이에 대해 앞으로 우리 불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 가르침을 바라겠습니다.

▲스님: 어떠한 분야든지 불법을 떠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다 부처님 법이자 우리들의 법입니다. 아주 작게 본다면, 스님이 그만큼 아신다면 경제 문제나 모든 일을 하시지 못 하십니까? 하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넓게 본다면 이거는 모두 각자가 하기 나름입니다. 생존경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면 저기선 저렇게 일어나고, 여기서 지배를 받는다면 저기선 지배하고, 이렇게 가는데 지금 지구가 집이라면 몇 사람이나 그 속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이나 생존할 수 있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 마음 씀씀이에 따라서 성장이 되거나 낙오가 되고, 또 성쇠가 되는 까닭에 지구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끼 한 마리를 기르면 그 이듬해에 금방 열 마리 스무 마리가 되고 수가 없이 늘어납니다. 만약에 연쇄적으로 잡아먹지 않는다면 마냥 불어나죠. 먹고살기도 어렵거니와 모든 물자도 빈곤해지는 결과가 될는지 모르죠. 자연 법칙으로 '너희가 마음을 넓게 쓰면 살아날 것이고, 넓지 못하다면 죽을 것이다.' 라는 양단간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죠.

만약에 선생님이 저기 지나가는 사람 따귀를 한 대 때렸다면 말입니다, 맞은 사람이 그냥 푹 쓰러져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금 일어나서 덤비고 거기에서 못 이기면 내일 또 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렇게 혼란 속에서 경쟁 속에서 돌아가는 거지요. 굶주리고 먹고 죽고 하는 것이 개미들 살림살이나 우리들 살림살이나 뭐 다른 게 있습니까? 좀 덩치가 크다 뿐이지, 살림살이의 용도가 좀 틀리다 뿐이죠. 아, 왕개미, 검은 개미, 붉은 개미가 싸움을 하는데 말입니다. 그냥 토굴을 다 뺏고 먹을 거 다 압수하고 그러니까 산산이 흩어져서 모두 날뛰는데, 흙에 묻혀 죽고 다리가 잘려서 죽고 병신이 되고 온통 이러는 걸 봤습니다. 사람과 뭐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선 굶어 죽는다, 또는 비가 안 와서 죽는다 이러는 것도 다 일리가 있는 겁니다. 일리가 없다면 부처님 법이 어딨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음을 넓게 써서 세세생생에 자유인이 되라는 얘기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천세계가 있고, 중천세계가 있고, 하천세계가 있습니다. 벌레들이 사는 세계가 있고, 땅 위로 다니는 세계가 있고, 날아다니는 세계가 있고 또는 그 모두를 종합해서 자유스럽게 사는 세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마음의 정신세계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 아닙니까? 또 여러분이 하고 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거를 발견하시라 이거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궁금증이 풀어지셨습니까? (대중 웃음) 그래서 모르더라도 이런 말을 들어 두신다면 언젠가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생각이 문득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보지도 못하고 먹어 보지도 못한 것은 대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 법문은 1993년 1월 3일 법제형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 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합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무영문화재(죽염제조장) 제 23호 효산스님의 기술지도로 제조되는 삼보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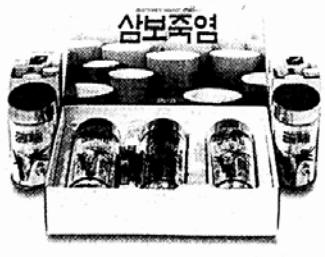
삼보죽염

장인정신의 혼이 깃든 정성으로 -

선가의 비방비전으로 황토가마에서 아홉번을 법제하는 것만이 전통죽염이라 말할 수 있으며, 환경과 식생활의 혼란에서 오는 현대인의 건강에 보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품목 \ 구분	규 격	소비자가	증 정	비 고
9회죽염	200g×3 (Box)	105,000	생활죽염 1포, 미용죽염 1포	일주일이내 배송 현금, 신용카드 결제 택배비자사부담
생활죽염	500g×10 (Box)	65,000	휴대용(20g), 원석자죽염	
미용죽염	250g×15 (Box)	52,500	휴대용(20g), 원석자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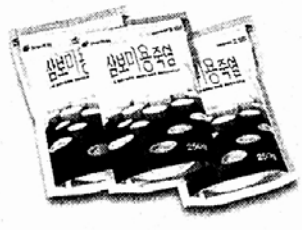
※ 위장병 : 잇몸질환에 효과 → 중앙일보 1월 21일(소개)
※ 죽염치약 원료(죽염) 공급 업체 : 수십차례 메스컴 보도
※ 취급점 모집, 딜러모집 상담
※ 1회 항균죽염 발명특허 획득 (생활, 미용죽염)



삼보죽염 200g×3개들이



삼보생활죽염 500g(한번 구운 항균죽염)



미용죽염 250g(한번구운항균미용죽염)

(주) 태성식품 · 삼보죽염
주소 : 서울 서초구 방배 2동 450-16 동화빌딩 406호 홈페이지 : www.skhm.co.kr
전화 : 02)522-7275 FAX 02)585-7275 080-523-8193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기업 - (주)한국자연과학

가시오가피 처음부터....
잘알고 먹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강"
그 소중함을 위해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주)한국자연과학이 늘 함께 합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
입니다.

전화상담 및 무료자료신청
TEL:(02)2272-4900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가시오가피
100% 국내산 토종 가시오가피를 사용

국내 최대
가시오가피 재배지"함박재 농장"
- KBS, MBC 뉴스 보도 -

가짜가 많아
오해도 많은 가시오가피
이제,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20년을 달려온
(주)한국자연과학이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가시오가피는
환경부 지정 야생보호식물
입니다.